〔연구논문〕

ISSN 2234-0793 (Print)
ISSN 1225-1151 (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43, No. 5 (2019) p.620~633
https://doi.org/10.5850/JKSCT.2019.43.5.620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 압박이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통해 성형수술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

이민선 · 이현화*†

인천대학교 인지행동 연구센터,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Effects of Family, Friends, and Social Media Pressures on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s via Internalization and Appearance Satisfaction

Minsun Lee · Hyun-Hwa Lee*†

Center for Perception and Behavioral Research, Inche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Received May 3, 2019; Revised June 2, 2019; Accepted August 1, 2019

Abstract

The popularity of cosmetic procedures has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Korean consumers have shown different levels of demand for the two types of cosmetic procedures (surgical and nonsurgica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ppearance pressure from family, friends, and social media on the internalization and face/body satisfaction that can determine the levels of acceptance for each cosmetic procedure among young Korean females. Data was collected from 379 females in their 20s and 30s, using an online survey questionnaire. Statistical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4.0 and AMO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nly social media pressure significantly influenced young women's internalization of attractive appearance. Internaliz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ace and body satisfaction. Face satisfac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and nonsurgical procedures; however, body satisfaction was not related to the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and nonsurgical procedures. This study highlights the significant importance of social media and its powerful impact on developing young women's body image perceptions.

***Key words*:** Appearance pressures, Internalization, Face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Acceptance of cosmetic procedure; 외모 압박, 내면화, 얼굴 만족도, 신체 만족도, 성형수술에 대한 수용 정도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외모 관리의 한 수단으로써 미용성형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성형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형은 하나의 외모 관리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심지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Holliday & Elfving-Hwang, 2012). 2017년 기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성형수술은 약 2,339만 건이며, 성형외과의사는 약 43,500명으로 조사되었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hwa@inha.ac.kr

다(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ISAPS], 2018). 이 조사에서 보고된 성형수술 횟수의 절대적 수치를 보면, 미국, 브라질,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가 미용성형의 상위 5개국으로 전체 성형수술 횟수의 38.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성형수술과 관련된 공식적인 최근 자료의 부재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ISAPS와 United Nations(UN)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The Economist』지의 조사에서는, 세계 성형수술 통계를 각 나라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비교할 경우,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 횟수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lastic makes perfect", 2013). 특히 외모중심주의의 사회적 분위기와 성형에 대한 높은 접근성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성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Kim et al., 2017).

미용성형은 크게 수술적 성형(surgical procedures)과 비수술적 성형(non-surgical procedures)으로 나누어진다(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ASPS], n.d.). ISAPS에서 보고된 2017년에 행해진 총 2,339만 건의 성형수술 중, 약 46%(약 1,077만 건)는 수술적 성형이었으며, 약 54%(약 1,262만 건)는 비수술적 성형으로 조사되었다(ISAPS, 2018). 수술적 성형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외모의 변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쌍꺼풀, 코성형, 가슴 확대/축소, 지방흡입 등이 포함되며, 비수술적 성형은 비교적 적은 통증과 짧은 회복 기간, 간단한 시술을 통해 수술적 성형과 유사한 효과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보톡스, 레이저 관리, 필링, 필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많은 나라의 경우 수술적 성형보다는 비수술적 성형의 시술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각의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통계수치가 조사되는 미국의 경우, 2018년 동안 약 181만 건의 수술적 성형과 약 1,591만 건의 비수술적 성형이 행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ASPS, 2019). 2010년에 보고된 약 190만 건의 수술적 성형과 약 485만 건의 비수술적 성형의 시술 횟수와 비교해보면, 수술적 성형은 5% 정도 감소한 반면 비수술적 성형은 228%의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ASPS, 2019). 즉,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은 확연히 다른 특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각각의 성형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성형을 선택하는 행동은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형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성형에 대한 높은 수용 태도를 보인다(Slevec & Tiggemann, 2010). 또한 개인의 외모 만족도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나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Cusumano & Thompson, 1997; Jang et al., 2012).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과 삼자영향 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 등의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과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사회에서 인정되는 매력적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박 수준은 개인이 지각하는 매력적 외모의 기준에 대한 내면화 수준을 형성하며, 이는 결국 외모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Thompson et al., 1999). 더욱이 외모에 대한 높은 불만족 수준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상태(Brechan & Kvalem, 2015)나 극단적 다이어트, 성형수술의 선택 등의 위험한 외모관리 행동(Davis, 1995; 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Stice & Shaw, 2002)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왔다. 성형에 대한 태도 및 실제 성형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 성별 및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Abbas & Karadavut, 2017; Hwang et al., 2017; Kim et al., 2017; Lee, 2013; Menzel et al., 2011; Seo et al., 2019; Sharp et al., 2015).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여성의 성형수술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영향과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거쳐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형을 제안하고, 변수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 압박과 내면화

한 개인은 다양한 소스를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서 통용되는 매력적인 외모의 기준에 대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인지하게 되는 외모의 기준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된다. 삼자영향 모형(Thompson et al., 1999)에서는 개인의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가족, 친구, 미디어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소스를 통해 외모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을수록 사회에서 인정하는 매력적인 외모의 내면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외모 기준의 내면화란 매력적인 외모의 기준을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삼는 정도를 의미한다(Thompson et al., 1999). 즉, 매력적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 수준은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정해진 외모의 기준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여러 행동들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과 내면화 수준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미디어를 세 가지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각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여 부모, 형제/자매, 애인, 배우자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다(Hardit & Hannum, 2012; Johnson et al., 2015; Shagar et al., 2019; Tylka et al., 2015).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요인과 그들이 속한 사회 및 문화의 시기와 특성에 따라 각각의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내면화에 미치는 통계적인 유의한 영향력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Hardit and Hannum(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 친구, 미디어 중에서 미디어만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유사하게, Johnson et al.(2015)과 Tylka et al.(2015)의 연구에서도 미디어와 애인으로부터의 압박은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압박의 영향력은 밝혀지지 않았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한 Shagar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호주 여성의 경우 미디어와 친구로부터의 압박은 내면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가족의 영향력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미디어, 친구,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이 모두 내면화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이 내면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국인을 대상으로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어왔다. 예를 들어, Lee and Kwon(2010)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TV 노출이 많을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Shin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마른 몸에 대한 부모, 친구, 미디어의 압박은 모두 내면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 및 확산 이전에는 미디어를 통한 외모 압박은 주로 TV나 잡지 등의 전통적인 대중매체의 영향력으로 설명되어왔다(Menzel et al., 2011). 하지만 최근 소셜 미디어의 사용시간이 전통적인 대중매체에의 노출시간보다 많아짐에 따라 신체 이미지 관련 연구들도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졌다(Lee, 2019; Lee & Lee, 2017; Marengo et al., 2018; Salomon & Brown, 2019). 특히,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Lewallen & Behm-Morawitz, 2016),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을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으로 한정하였으며,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외모 압박과 내면화 사이에는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가설 1. 가족으로부터의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내면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친구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내면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내면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외모 만족도

외모 만족도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판단의 정도를 의미하며(Stice & Shaw, 2002),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 내에서 정해진 매력적 외모의 기준에 대한 스스로의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게 된다(Shagar et al., 2019). 이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매력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많은 일반인 여성들에게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여성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외모의 기준과 자신의 외모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개

인의 외모 만족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과 외모 만족도 사이의 부(–)적인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졌으며(Johnson et al., 2015; Lovering et al., 2018),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도 내면화 수준이 높을수록 외모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Lee & Lee, 2019).

외모 만족도는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태도 및 평가 또는 각각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로 측정된다(Berschied et al., 1973; Cash et al., 2002). 사실 한 개인의 외모 만족도란 외모에 대한 하나의 특성(예, 외모 매력도, 신체 사이즈, 몸무게 등)이나 특정 부위(예, 눈, 코, 배, 허벅지 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보다는 이러한 각각의 평가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된다. 이에 따라, 외모 만족도는 주로 외모나 신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측정되어왔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얼굴과 신체에 대한 만족도로 구분하여 측정되기도 한다(Lee & Lee, 2016). 이는 각 사회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에서 보이는 차이로 인해 각 나라에서 주로 행해지는 성형수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얼굴과 관련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이 많이 행해지는 반면, 서구문화권에서는 신체와 관련된 성형이 많이 진행되는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깨끗한 피부나 쌍꺼풀이 있는 눈 등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 대표적인 경우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외모 만족도에 미치는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의 영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외모 만족도를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분류하였으며, 내면화 수준, 얼굴 만족도, 신체 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4. 내면화는 얼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내면화는 신체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 수준은 여성의 심리 상태와 행동적 결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많은 서구화된 사회에서 여성에게 특히 외모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Calogero et al., 2010; Didie et al., 2010; Slevec & Tiggemann, 2010; Swami, 2009). 다시 말해, 사회에서 여겨지는 매력적 외모의 이미지와 비교하여 자신의 외모에서 부족한 부분을 성형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외모 만족도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수 간의 부(–)적인 관계가 밝혀져 왔다(Lee, 2013; Seo et al., 201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으로 발생하는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는 삼자영향 모형을 적용한 신체 이미지 관련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외모에 대한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거쳐 외모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Johnson et al., 2015; Lovering et al., 2018; Shagar et al., 2019). Johnson et al.(2015)은 미디어의 압박은 외모 내면화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외모 불만족 수준을 높이게 되어 궁극적으로 여성의 섭식이상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Shagar et al.(2019)은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 및 신체 관리 행동을 결정하는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주 여성의 경우 친구와 미디어의 압박은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거쳐 섭식이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레이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모두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를 통해 섭식이상행동을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의 압박 수준은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이며, 외모 만족도를 낮아지게 하여 궁극적으로 외모 관리 수단의 하나인 성형에 대한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앞서 설명되었듯이,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며, 보고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횟수에서도 확연히 다른 변화를 보인다. 특히, 비수술적 성형은 수술적 성형에 비해 낮은 위험도를 가지며, 비교적 간단한 시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성형수술에서 비수술적 성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 만족도와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고찰을 위해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를 구분하여 각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 다음의 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6. 얼굴 만족도는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얼굴 만족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신체 만족도는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신체 만족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변수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다음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제안된 연구모형과 가설은 <Fig. 1>에 제시되었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인 20~30대 여성은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총 379부의 유효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조사참여자(N=379)는 20~30대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29.8세(S.D.=4.92)였다(Table 1). 직업은 사무직(n=216, 57.0%), 학생(n=57, 15.0%), 전문직(n=47, 12.4%), 기타(n=41, 10.8%), 자영업(n=13, 3.4%), 공무원(n=5, 1.3%)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n=258, 68.1%)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 재학/졸업(n=69, 18.2%), 대학원 이상(n=28, 7.4%), 고등학교 졸업 미만(n=24,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참여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각각 161.8cm(S.D.=5.12, Min=148cm, Max=180cm)와 55.7kg(S.D.=9.17, Min=39kg, Max=100kg)이었고, 평균 신체질량지수는 21.2kg/m^2 (S.D.=3.10, Min=15.4kg/m^2, Max=38.6kg/m^2)로 정상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조사참여자 중 135명(35.6%)이 수술적 성형을 해본 적이 있었으며, 162명(42.7%)이 비수술적 성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3. 측정도구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은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4(SATAQ-4)(Schaefer et al., 2015)의 Pressures-Family, Pressures-Peers, Pressures-Medi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세 변수에 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디어에 대한 압박 문항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참여자의 응답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는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내면화는 SATAQ-4의 하위차원 중 Internalization-General attractivenes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전반적인 외모 매력도와 관련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참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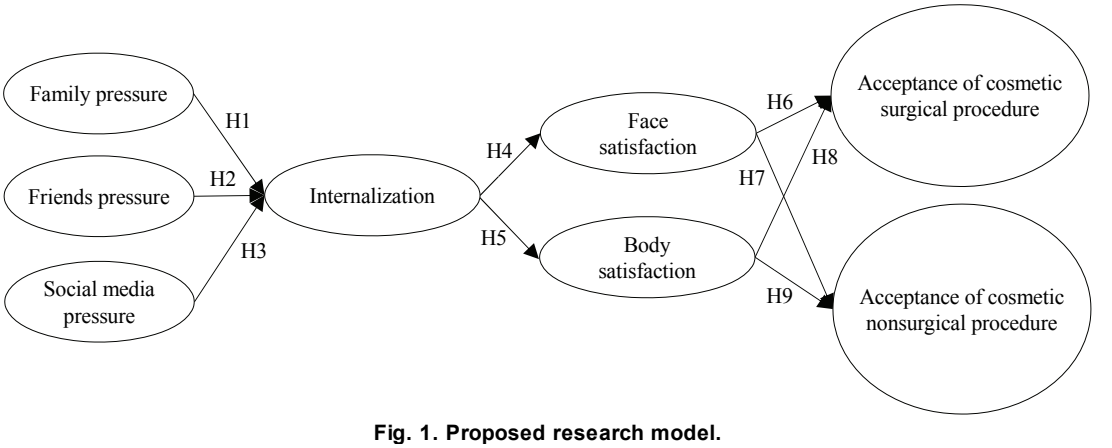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N*=379)

Variable	Categories	n	%
Occupation	Student	57	15.0
	Office worker	216	57.0
	Public officer	5	1.3
	Own business	13	3.4
	Professional	47	12.4
	Others	41	10.8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24	6.3
	Currently attending college or graduated	69	18.2
	Currently attending university or graduated	258	68.1
	Graduate degree	28	7.4
Previous experie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Yes	135	35.6
	No	244	64.4
Previous experie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Yes	162	42.7
	No	217	57.3
Height (cm)	Mean=161.8, S.D.=5.12, Min=148, Max=180		
Weight (kg)	Mean=55.7, S.D.=9.17, Min=39, Max=100		

중에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의 매력도에 대한 높은 내면화 수준을 의미한다.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는 the Body Parts Satisfaction Scale (SPSS)(Berschied et al., 1973)의 12문항 중 성형수술과 관련이 없는 신체 부위에 대한 3문항(귀, 머리카락, 몸무게)을 제외한 후, '전체적인 얼굴'과 '전체적인 바디'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얼굴 만족도에는 전체적인 얼굴, 턱, 쌍꺼풀, 입술, 코, 스킨 톤의 6문항이 활용되었으며, 신체 만족도에는 전체적인 바디, 팔, 엉덩이, 허벅지, 복부의 5문항이 포함되었다. 조사참여자는 각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 수준을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점(매우 만족한다) 중에서 선택하였다. 즉, 높은 점수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는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ACSS)(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의 Consideration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앞으로의 성형 계획 및 태도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이 외에 나이, 성별, 직업, 학력의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경험 여부가 설문에 포함되었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이전 경험변수는 제안된 연구모형의 분석 시, 수술적,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주요 연구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은 SPSS 23.0을 활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및 가설 검증의 분석은 AMOS를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판단은 the Comparative fit index(CFI), the Tucker-Lewis incremental fit index(TLI),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을 사용하였다(Byrne, 2010). Hu and Bentler(1999)의 제안에 따르면, CFI≥.95, TLI ≥.95, RMSEA≤.06은 연구모형의 좋은 적합성, .90<CFI and TLI≤.94, .07≤RMSEA<.10은 적절한 적합성을 의미한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내면화, 얼굴 만족도, 신체

만족도,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결과, 외모에 대한 압박의 세 요인 중 소셜 미디어 압박(μ=3.25, S.D.=1.09)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압박(μ=2.24, S.D.=1.11), 친구의 압박(μ=2.01. S.D.=.94)의 순이었다. 매력적 외모의 내면화 수준의 평균은 3.25(S.D.=.64)였으며,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는 각각 3.11(S.D.=.69), 2.66(S.D.=.74)으로 조사되어 얼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에 대한 태도는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μ=3.55, S.D.=.96)가 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μ=3.12, S.D.=.9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의 세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모두 .90 이상이었다(가족_압박: Factor loadings=.92~.94, Eigenvalue=3.45, % of variance=86.24; 친구_압박: Factor loadings=.92~.95, Eigenvalue=3.54, % of variance=88.39; 소셜 미디어_압박: Factor loadings=.92~.93, Eigenvalue=3.40, % of variance=85.08).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95(가족_압박), .96(친구_압박), .94(소셜 미디어_압박)로 모든 변수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내면화 변수에 대해서는 하나의 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68~.86의 분포를 보였다(Eigenvalue=3.96, % of variance=66.03). Cronbach's alpha는 .89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얼굴 만족도(6문항)와 신체 만족도(5문항)의 각 변수에 포함되는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얼굴 만족도의 '스킨 톤' 문항이 낮은 요인적재량으로 제거되었다. 얼굴 만족도의 5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69~.80으로 나타났으며(Eigenvalue=2.65, % of variance=52.93), 신체 만족도의 5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74~.84 수준으로 분석되었다(Eigenvalue=3.04, % of variance=60.76).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에 대한 Cronbach's alpha는 각 .77과 .84로 높은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의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수술적 성형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63~.88로 분포되었다(Eigenvalue=3.38, % of variance=67.58).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5문항 중, 요인적재량이 낮은 1문항(나는 어떤 종류의 비수술적 성형이든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이 제거되었으며, 남은 4문항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87~.92로 분포되었다(Eigenvalue=3.18, % of variance=79.39). Cronbach's alpha는 .88(수술적 성형), .91(비수술적 성형)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지수는 χ^2=1003.78, df=586, p<.001, TLI=.96, CFI=.96, RMSEA=.04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각 요인의 표준적재치(≥.50)와 개념신뢰도(≥.70)는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Table 2). 얼굴 만족도(AVE=.41)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값은 .50 이상이었다. 비록 얼굴 만족도의 평균분산추출값은 .41로 기준치인 .50 이상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얼굴 만족도의 개념신뢰도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어(Fornell & Lar-

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Family pressure	I feel pressure from family members to look thinner.	.92	-	.95	.82	.93
	I feel pressure from family members to improve my appearance.	.92	31.22***			
	Family members encouraged me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89	28.40***			
	Family members encourage me to get in better shape.	.89	28.16***			
Friends pressure	My peers encourage me to get thinner.	.92	-	.96	.85	.96
	I feel pressure from my peers to improve my appearance.	.95	35.24***			
	I feel pressure from my peers to look in better shape.	.88	27.89***			
	I get pressure from my peers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93	33.34***			

(R): reversed item
***p<.001

Table 2. Continued

Construct	Items	Standardized factor loading	*t*	Cronbach's α	AVE	CR
Social media pressure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look in better shape.	.91	-	.94	.79	.91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look thinner.	.86	24.24***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improve my appearance.	.91	27.94***			
	I feel pressure from social media to decrease my level of body fat.	.87	25.53***			
Internalization	It is important for me to look good in the clothes I wear.	.62	-	.89	.61	.94
	I think a lot about my appearance.	.87	13.20***			
	I want to be good looking.	.75	12.10***			
	I really think much about my appearance.	.87	11.90***			
	it is important to me to be attractive.	.76	12.00***			
	I think much about how I look.	.80	12.62***			
Face satisfaction	Overall face	.71	-	.77	.41	.79
	Chin	.59	10.37***			
	Eyelids	.59	9.87***			
	Libs	.64	10.52***			
	Nose	.66	10.79***			
Body satisfaction	Overall body	.81	-	.84	.51	.85
	Arms	.69	13.63***			
	Buttocks	.65	12.84***			
	Thighs	.73	14.49***			
	Tummy	.68	13.49***			
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In the future, I could end up having some kind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1	-	.88	.60	.86
	If I could have a cosmetic surgical procedure done for free I would consider trying it.	.83	19.03***			
	If I knew there would be no negative side effects or pain, I would like to try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3	18.71***			
	I have sometimes thought about have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6	19.25***			
	I would never have any kind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R)	.52	10.20***			
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In the future, I could end up having some kind of cosmetic non surgical procedure.	.88	-	.91	.72	.90
	If I could have a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done for free I would consider trying it.	.80	21.05***			
	If I knew there would be no negative side effects or pain, I would like to try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79	21.54***			
	I have sometimes thought about have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92	25.78***			

(R): reversed item
***p<.001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1	.82[a]							
2	.34[b]	.85						
3	.19	.27	.79					
4	.06	.07	.32	.61				
5	.01	.00	.01	.03	.41			
6	.08	.06	.08	.06	.31	.51		
7	.04	.07	.14	.19	.10	.04	.60	
8	.03	.08	.20	.29	.04	.04	.48	.72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1=Family pressure, 2=Friends pressure, 3=Social media pressure, 4=Internalization, 5=Face satisfaction, 6=Body satisfaction, 7=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8=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cker, 1981),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에 대한 집중타당도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변수들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값과 두 구성개념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Fornell & Larcker, 1981)(Table 3).

3.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274.99, df=663, p<.001, TLI=.94, CFI=.94, RMSEA=.05로 적절한 적합성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의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변수 간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4>와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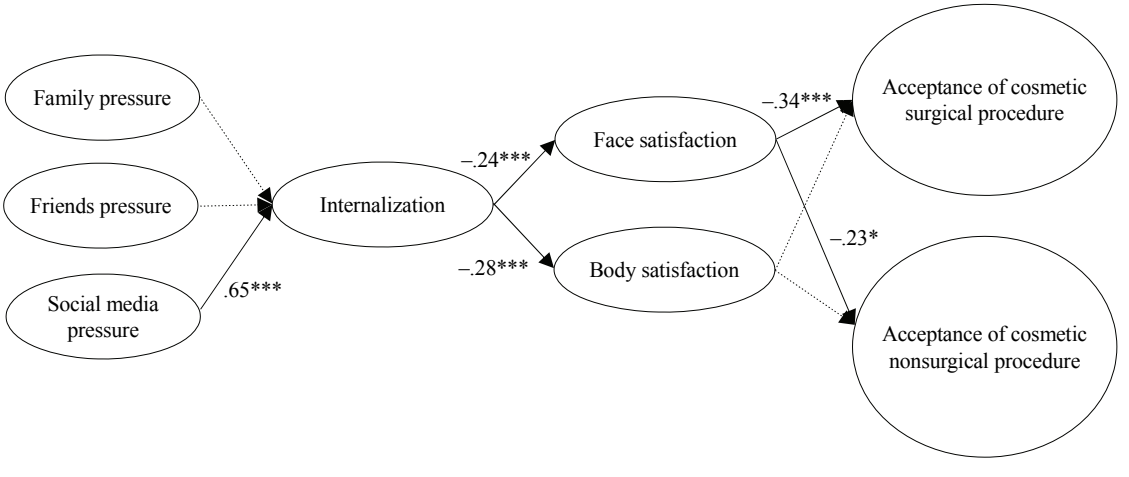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 중, 소셜 미디어만이 매력적인 외모의 내면화 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1과 H2는 기각되었으며, H3은 채택되었다. 즉, 소셜 미디어의 압박을 크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외모 매력도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받는 외모에 대한 압박의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가족, 친구, 미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Thompson et al., 1999). 하지만, 가족, 친구,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의 압박이 내면화, 외모비교, 신체 만족도 등에 직접 경로나 간접 경로를 통해 미치는 영향력은 연구대상의 나이, 성별,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된 경우가 많다(Johnson et al., 2015; Tylka & Andorka, 2012; Tylka et al., 2015).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을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도 있다.

내면화가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4와 H5는 지지되었다. 이는 자신의 외모 매력도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자신의 얼굴과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와의 부(–)적 관계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이다(Lee & Lee, 2018; Shagar et al., 2019).

얼굴 만족도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H6과 H7은 모두 지지되었다. 즉 자신의 얼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체 만족도는 수술적과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즉, H8과 H9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여성에게는 신체 부위에 대한 만족보다는 얼굴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임을 의미한다. 제안된 연구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이전 성형경험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수술적 성형의 이전 경험→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21, t=–5.40, p<.001; 비수술적 성형의 이전 경험→비수술적 성형 수

Table 4. Results of the significance test for the paths

	Paths	*t*	*p*	Accept
H1	Family pressure→Internalization	.88	.38	Reject
H2	Friends pressure→Internalization	–1.74	.08	Reject
H3	Social media pressure→Internalization	9.03	<.001	Accept
H4	Internalization→Face satisfaction	–3.82	<.001	Accept
H5	Internalization→Body satisfaction	–4.58	<.001	Accept
H6	Face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3.34	<.001	Accept
H7	Face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2.22	<.05	Accept
H8	Body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surgical procedure	.01	.99	Reject
H9	Body satisfaction→Acceptance of cosmetic nonsurgical procedure	–.66	.51	Reject



*p<.05, ***p<.001

Fig. 2. The final model with path relationship.

용 정도: β=–.16, t=–4.21, p<.001).

4. 추가 모형 검증

본 연구의 결과, 현대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 형성에는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만이 유의한 영향력이 갖으며, 얼굴 만족도가 성형의 수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의 압박, 내면화, 얼굴 만족도, 성형의 수용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620.51, df=283, p<.001, TLI=.94, CFI=.95, RMSEA =.06으로 적절한 적합성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정지수에서 내면화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도 사이의 경로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두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분석결과는 χ^2=503.73, df=281, p<.001, TLI =.96, CFI=.97, RMSEA=.05로 좋은 적합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구모형의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두 경로가 추가된 대안모형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안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모형에서 제시된 변수간 경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소셜 미디어 압박→내면화: β=.62, t=9.91, p<.001; 내면화→얼굴 만족도: β=–.19, t=–3.14, p<.01; 얼굴 만족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24, t=–4.33, p<.001; 얼굴 만족도→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14, t=–2.72, p<.01; 내면화

→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43, t=7.36, p<.001; 내면화→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54, t=8.98, p<.001). 변수 간 관계에 있어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대안모형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 미디어 압박이 내면화를 거쳐 얼굴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12, SE=.04, p<.05), 이는 불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면화가 얼굴 만족도를 거쳐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내면화→얼굴 만족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05, SE=.02, p<.05; 내면화→얼굴 만족도→비수술적 성형 수용 정도: β=.03, SE=.02, p<.05). 또한 내면화와 성형 수용 정도의 관계에 있어 얼굴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불완전매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태도의 형성과정을 고찰해보고자, 다양한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 내면화, 외모 만족도의 신체 이미지 관련 심리적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보다 세부적인 고찰을 위해 외모 만족도는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로 구분하고, 성형수술은 수술적 성형과 비수술적 성형으로 분류하여 변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20~30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압박 요인에 대한 주요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 사이의 흥미로운 관계가 밝혀졌다. 우선, 가족, 친구, 소셜 미디어의 압박 수준과 내면화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압박만이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친구로부터의 외모 압박이 여성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Shin et al.(2017)의 연구결과에서 가족, 친구, 미디어의 압박이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과는 상반되지만,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Hardit and Hannum(2012), Johnson et al.(2015), Tylka et al.(2015)의 연구에서 미디어의 압박만이 내면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더욱이 Shin et al.(2017)의 연구와는 다르게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소셜 미디어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를 대신하여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압박을 다른 사회문화적 요인의 압박과 동시에 고려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유일한 영향력은 본 연구로부터 밝혀진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소셜 미디어의 압박만이 젊은 여성의 내면화의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대 우리사회에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Butkowski et al., 2019; Lee & Lee, 2017). 소셜 미디어의 유의한 영향력은 가족과 친구 요인을 제외하고 분석한 추가 모형 검증결과에서도 검증되었다.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여(Myers & Crowther, 2007; Shaga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내면화와 외모 만족도 사이의 유의한 부(–)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지된 이상적 외모의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할 목표로 삼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현재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젊은 여성의 내면화 수준은 얼굴과 신체 만족도에 모두 부(–)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외모 만족도와 성형수술 수용 정도를 각각 얼굴 및 신체 만족도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의 수용 정도로 구분하여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술적과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태도에는 얼굴 만족도만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샘플인 20~30대 여성의 특성일 수도 있으며, 이상적 미의 기준에 대한 우리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으로 체중 및 군살의 증가 등의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규정되는 이상적 여성의 몸의 기준인 마른 몸과는 점차 멀어지게 된다(Yu & Lee, 2019). 젊은 여성은 아직까지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 부위보다는 얼굴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여성은 서구사회의 여성들보다 평균적으로 작고 마른 신체 사이즈를 갖고 있으며(Lee & Lee, 2016), 특히 최근의 우리사회에서는 깨끗한 피부를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

의 얼굴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쌍꺼풀 등의 눈 성형은 아시아권에서 주로 행해지는 성형수술로 알려져 있다(Holliday & Elfving-Hwang, 2012).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가족과 친구의 압박, 신체 만족도 변수를 제외한 추가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의 압박이 내면화와 얼굴 만족도를 거쳐 성형수술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제안된 변수 간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과 친구의 압박, 신체 만족도 변수가 포함된 연구모형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내면화와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 수용 태도 사이의 유의한 직접 경로가 추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의 20~30대 여성의 신체 이미지는 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형성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신체 만족도보다는 얼굴 만족도가 성형에 대한 수용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며, 이상적 외모의 기준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인식하는 수준은 성형 수용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젊은 여성들이 고려하는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은 주로 자신의 얼굴과 관련된 요소를 이상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이미지와 성형수술 태도에 대한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사회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소셜 미디어가 그들의 신체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은 본 연구의 주요한 의의가 된다. 최근 여러 서구사회에서는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미디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사회에서도 건강한 신체 이미지의 확산을 위한 정부적 및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는 여성의 신체 관련 사진들에 대한 사용자의 올바른 수용 태도의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나 관련 정보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압박의 요인으로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젊은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구보다는 애인으로부터 이상적 외모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Tylka et al., 2015). 남성이나 다른 연령대(청소년, 중년여성, 노년여성 등)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이미지의 주요 사회문화적 결정 요인을 고찰, 비교하는 연구도 제안된다. 또한 소셜 미디어로부터의 외모 압박을 야기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활동(예, 셀피 행동, 소셜 미디어상의 외모 관련 사진 활동, 연예인의 소셜 미디어의 영향 등)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으로 인한 사용자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는 소셜 미디어와 신체 이미지 연구분야의 심화를 위해 필요하겠다. 또한 성형 이외의 다양한 외모 관리 행동(다이어트, 운동, 화장, 몸매 및 외모 관리 보조제 사용 등)과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관련 연구의 확장을 위해 제안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결과의 의의와 함께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한 편의표집방법의 조사참여자 모집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얼굴 만족도와 신체 만족도의 측정에 있어, 각 부위에 대한 만족 정도를 고려하였다. 하지만, 외모 만족도는 각 부위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와 더불어 전체적인 매력 수준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사실 신체 이미지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외모 만족도의 측정이 필요하겠다. 셋째, 비록 성형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사회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여러 여성들은 자신의 성형경험이나 앞으로의 수용 태도 및 의도에 대한 표현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조사된 수술적 및 비수술적 성형에 대한 수용 정도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References

Abbas, O. L., & Karadavut, U. (2017).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men's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Body image, media exposure, social network use, masculine gender rule

stress and religious attitudes. *Aesthetic Plastic Surgery*, *41* (6), 1454–1462. doi:10.1007/s00266-017-0882-3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n.d.). Cosmetic procedures.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Retrieved from https://www.plasticsurgery.org/cosmetic-procedures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2019). 2018 National Plastic Surgery Statistics. *American Society of Plastic Surgeons*. Retrieved from https://www.plasticsurgery.org/documents/News/Statistics/2018/plastic-surgery-statistics-report-2018.pdf

Berschied, E., Walster, E., & Bohrnstedt, G. (1973). The happy American body: A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7*, 119–131.

Brechan, I., & Kvalem, I. L. (2015). Relationship between body dissatisfaction and disordered eating: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Eating Behaviors*, *17*, 49–58. doi:10.1016/j.eatbeh.2014.12.008

Butkowski, C. P., Dixon, T. L., & Weeks, K. (2019). Body surveillance on Instagram: Examining the role of selfie feedback investment in young adult women's body image concerns. *Sex Roles*, *81*(5–6), 385–397. doi:10.1007/s11199-018-0993-6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ications, and programming* (2nd ed.). New York, NY: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Calogero, R. M., Pina, A., Park, L. E., & Rahemtulla, Z. (2010). Objectification theory predicts college women's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Sex Roles*, *63*(1–2), 32–41. doi:10.1007/s11199-010-9759-5

Cash, T. F., Fleming, E. C., Alindogan, J., Steadman, L., & Whitehead, A. (2002). Beyond body image as a trai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ody image states scale. *Eating Disorders*, *10*(2), 103–113. doi:10.1080/10640260290081678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9–10), 701–721. doi:10.1007/BF02936336

Davis, K. (1995). *Reshaping the female body: The dilemma of cosmetic surgery*. New York, NY: Routledge.

Didie, E. R., Kuniega-Pietrzak, T., & Phillips, K. A. (2010). Body image in patients with body dysmorphic disorder: Evaluations of and investment in appearance, health/illness, and fitness. *Body Image*, *7*(1), 66–69. doi:10.1016/j.bodyim.2009.09.007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10.2307/3151512

Hardit, S. K., & Hannum, J. W. (2012). Attachment,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and the development of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9*(4), 469–475. doi:10.1016/j.bodyim.2012.06.003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2), 137–149. doi:10.1016/j.bodyim.2005.03.003

Holliday, R., & Elfving-Hwang, J. (2012). Gender, globalization and aesthetic surgery in South Korea. *Body & Society*, *18*(2), 58–81. doi:10.1177/1357034X12440828

Hu, L.-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doi:10.1080/10705519909540118

Hwang, A. H., Kang, J. W., & Han, S. S. (2017).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on cosmetic surgery and skin care.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13*(2), 125–132. doi:10.15810/jic.2017.13.2.005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2018).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7.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Retrieved from https://www.isaps.org/wp-content/uploads/2019/03/ISAPS_2017_International_Study_Cosmetic_Procedures_NEW.pdf

Jang, J.-W., Lee, J.-Y., & Jang, J.-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exual objection experiences and desire for aesthetic surgery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ation of the sociocultural standards of ideal appearance, body surveillance, and body sham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7*(4), 559–577. doi:10.18205/kpa.2012.17.4.002

Johnson, S. M., Edwards, K. M., & Gidycz, C. A. (2015). Interpersonal weight-related pressure and disordered eating in college women: A test of an expanded tripartite influence model. *Sex Roles*, *71*(1–2), 15–24. doi:10.1007/s11199-014-0442-0

Kim, Y. A., Chae, D., & Kim, H. (2017). 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 455–464. doi:10.5392/JKCA.2017.17.01.455

Lee, H. (2013). Predictors of wish to undergo cosmetic surgery according to experience of cosmetic surgery i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1), 285–293. doi:10.5762/KAIS.2013.14.1.285

Lee, M. (2019). The effects of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and appearance comparison on body satisfaction-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stagram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1), 81–94. doi:10.5850/JKSCT.2019.43.1.81

Lee, Y.-H., & Kwon, S.-Y. (2010). The effect of TV exposure and sociocultural factors on the process from awareness of body-image to behavioral respons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0*(4), 390–424.

Lee, M., & Lee, H.-H. (2017). The effects of SNS appearance-related photo activity on women's body imag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1* (5), 858–871. doi:10.5850/JKSCT.2017.41.5.858

Lee, M., & Lee, H.-H. (2018). Effects of model's body size in on line shopping site on female consumers' body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5), 839–854. doi:10.5850/JKSCT.2018.42.5.839

Lee, M., & Lee, H.-H. (2019). Objective versus subjective comparisons of body size against thin media models, media pressures, internalization, and body satisfac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016/j.soscij.2019.01.004

Lee, M., & Lee, M. (2016). Body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ical vs. nonsurgical proced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6*(10), 34–39.

Lewallen, J., & Behm-Morawitz, E. (2016). Pinterest or Thinterest?: Social comparison and body image on social media. *Social Media + Society*, *2*(1), 1–9. doi:10.1177/2056305116640559

Lovering, M. E., Rodgers, R. F., George, J. E., & Franko, D. L. (2018). Exploring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dissatisfaction in postpartum women. *Body Image*, *24*, 44–54. doi:10.1016/j.bodyim.2017.12.001

Marengo, D., Longobardi, C., Fabris, M. A., & Settanni, M. (2018). Highly-visual social media and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ce: The mediating role of body image concer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2*, 63–69. doi:10.1016/j.chb.2018.01.003

Menzel, J. E., Sperry, S. L., Small, B., Thompson, J. K., Sarwer, D. B., & Cash, T. F. (2011). Internalization of appearance ideals and cosmetic surgery attitudes: A test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ody image. *Sex Roles*, *65*(7–8), 469–477. doi:10.1007/s11199-011-9983-7

Myers, T. A., & Crowther, J. H. (2007). Sociocultural pressures, thin-ideal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Could feminist beliefs be a moderating factors? *Body Image*, *4*(3), 296–308. doi:10.1016/j.bodyim.2007.04.001

Plastic makes perfect: Where is most plastic surgery performed? (2013, January 30). *The Economist*. Retrieved from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2013/01/30/plastic-makes-perfect

Salomon, I., & Brown, C. S. (2019). The selfie generation: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use and early adolescent body imag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9*(4), 539–560. doi:10.1177/0272431618770809

Schaefer, L. M., Burke, N. L., Thompson, J. K., Dedrick, R. F., Heinberg, L. J., Calogero, R. M., ... Swami, V. (201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4 (SATAQ-4). *Psychological Assessment*, *27*(1), 54–67. doi:10.1037/a0037917

Seo, Y. A., Cho Chung, H.-I., & Kim, Y. A. (2019). Experience and acceptance of cosmetic procedures among South Korean women in their 20s. *Aesthetic Plastic Surgery*, *43*(2), 531–538. doi:10.1007/s00266-018-1257-0

Shagar, P. S., Donovan, C. L., Loxton, N., Boddy, J., & Harris, N. (2019). Is thin in everywhere?: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 subsection of Tripartite Influence Model in Australia and Malaysia. *Appetite*, *134*, 59–68. doi:10.1016/j.appet.2018.12.025

Sharp, G., Tiggemann, M., & Mattiske, J. (2015). Predictors of consideration of labiaplasty: An extension of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of beauty ideal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9*(2), 182–193. doi:10.1177/0361684314549949

Shin, K., You, S., & Kim, E. (2017). Sociocultural pressure, internalization, BMI, exercise, and body dissatisfaction in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2*(13), 1712–1720. doi:10.1177/1359105316634450

Slevec, J., & Tiggemann, M. (2010).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in middle-aged women: Body image, aging anxiety, and the media.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1), 65–74. doi:10.1111/j.1471-6402.2009.01542.x

Stice, E., & Shaw, H. E. (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5), 985–993. doi:10.1016/S0022-3999(02)00488-9

Swami, V. (2009). An examination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Questionnaire-3 in Malaysia. *Body Image*, *6*(2), 129–132. doi:10.1016/j.bodyim.2009.01.003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ylka, T. L., & Andorka, M. J. (2012). Support for an expanded tripartite influence model with gay men. *Body Image*, *9*(1), 57–67. doi:10.1016/j.bodyim.2011.09.006

Tylka, T. L., Russell, H. L., & Neal, A. A. (2015). Self-compassion as a moderator of thinness-related pressures' associations with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disordered eating. *Eating Behaviors*, *17*, 23–26. doi:10.1016/j.eatbeh.2014.12.009

Yu, H., & Lee, M. (2019). The effects of perceived ageis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appearance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Korean older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1), 112–124. doi:10.5850/JKSCT.2019.43.1.112

이 민 선

인천대학교 인지행동 연구센터 연구원

이 현 화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